



2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박찬호 입단 기자회견에서 박찬호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화맨 박찬호 6억 '통 큰 기부'

유소년 야구 발전 기금으로... 연봉논란 해소 '최고의 묘수'

### 최저 연봉 2400만원 계약

'코리아 특급' 박찬호(38)가 파격적인 '기부 계약' 형식으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 입단했다.

박찬호는 20일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정해진 최저 연봉인 2400만원만 받고 고향팀인 한화의 유니폼을 입기로 했다.

팀의 에이스인 류현진의 몸값에 맞춰 박찬호에게 총 6억원(연봉 4억원·음선 2억원)을 주려 했던 한화는 박찬호의 뜻에 따라 이 돈을 유소년·아마추어 야구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400만원은 내년에 될 선수로 KBO에 등록할 때 보장하는 최소 연봉이다. 따라서 프로 19년 차인 박찬호로서는 사실상 무보수로 뛰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간 거액의 연봉 계약에 성공한 선수들이 일부를 떼어내 모금 기금이나 유소년 야구 성금을 기탁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기부에 초점을 맞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선수는 박찬호가 처음이다.

미국과 일본의 프로야구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18년간 1000억원 이상을 번 '역만장자' 박찬호가 말 그대로 대의를 취하면서 통 큰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박찬호 주요 약력

- 출생일 1973.6.29
- 신장 185cm / 95kg
- 학력 한양대
- 주요경력
  - 1994.1~2001.11 LA 다저스
  - 2002.1~2005.7 텍사스 레인저스
  - 2005.7 샌디에고 파드리스
  - 2006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국가대표
  - 2007~2007.6 뉴욕 메츠
  - 2007.6 휴스턴 애스트로스
  - 2007.12~2008.12 LA 다저스
  - 2008.12 필라델피아 필리스
  - 2010.2 뉴욕 양키스
  - 2010.8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 2010.12~2011.10 오릭스 버펄로스
  - 2011.12 한화 이글스 입단 예정

###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

- 활동기간: 1994~2010년
- 최초 진출팀: LA다저스
- 방어율 / 탈삼진: 4.36 / 1,715개

총 출장경기 476경기(287선발)

승	124	패	98	기타	254
---	-----	---	----	----	-----

연말뉴스

한화에서 선수 생활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한 박찬호는 한국프로야구 데뷔를 앞두고 줄곧 돈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타냈다.

KBO는 지난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박찬호에게 신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내년부터 곧바로 1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길을 터줬고, 박찬호는 '통 큰' 기부로 자신을 받아들인 야구계에 화답했다.

박찬호는 지난해에도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와 1년간 연봉 120만 달러, 음선 100만 달러 등 총 22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투구이닝당 10만원씩 오릭스가 한국의 복지 재단에 기부금을 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오릭스 구단이 한국 유소년 야구발전 기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기부 운동에 앞장섰다.

1994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데뷔해 2010년 피츠버그에서 필 때까지 메이저리그에서 17년간 아시아투수 역대 최다승인 124승을 거둔 박찬호는 이미 20대 중반에 백만장자, 30대 초반에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라 운택한 환경에서 현역 생활을 이어왔다.

박찬호가 내년에 손에 쥘 2400만원은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 받았던 연봉(10만9000달러)보다도 훨씬 적어 그의 야구 인생에서 최소 연봉에 해당한다. 작년 오릭스에서 받았던 120만 달러에 비춰봐도 연봉이 무려 50분의 1로 줄었다. /연합뉴스

## “한국 야구 발전에 씨앗 뿌렸다”

### 박찬호 일문일답

-한화에 입단하게 된 소감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18년 동안 고국에 대한 애착을 많이 느꼈다. 언젠가는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그림을 그려 왔다. 오늘이 그 소망을 이루는 감격스러운 날이 됐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 야구의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저연봉인 2400만원의 금액을 흔쾌히 수락했는데.

▲한국에서 뛰는 영광스러운 기회에 얼마를 받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 선수로서 사회 환원을 하면서 어린 선수들에게 어떤 롤 모델이 되느냐가 훨씬 값어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KBO에 등록하려면 최소 연봉은 필요하더라. 이 역시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곳에 쓰겠다.

-한국 유소년 야구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책정된 금액은 씨앗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열매를 맺고 큰 나무로 성장하도록 돕는 건 구단이다. 박찬호가 작은 씨앗을 뿌렸고, 한화가 함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계획을 고민할 것이다.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의 차이는 인프라에서 온다. 한국 야구가 많이 부흥했는데 이제 흔들리지 않고 집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거기서 가장 필요

한 것은 인프라다.

-내년 목표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분명히 팀에 기여해야 한다. 도움이 되는 투수이자 베테랑의 역할을 할 자신이 있다. 나이가 있고 부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트레이너들과 함께 관리할 것이다.

-내년 시즌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우승이다. 우승의 감격을 느껴 본 사람은 그 맛을 알기에 더 간절해진다. 내년 시즌 한국의 가을 잔치에서 한화가 챔피언이 되는데 기여하고 싶다. 가을 잔치의 마지막 경기 승리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연합뉴스

## 최경주, 2012년 주목할 골프 선수 18위

PGA 선정, 양용은 52위로  
마스터스 한국계 5명 출전

한국프로골프의 간판 최경주가 '2012년에 주목할만한 골프 선수' 18위에 올랐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2012년에 주목할만한 골프 선수 100명을 선정, 16~20위 선수들을 20일 공개했다.

최경주는 지난 5월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데이비드 톱스와 연장전 끝에

우승을 확정 지었다.

최경주는 이어 지난 10월 자신이 주최한 '최경주 CJ 인비테이셔널'에서 멋진 역전극을 펼쳐며 국내 무대에서는 3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16위에는 잘 슈워젤이 올랐고 매트 쿠차, 헨터 메이리, 리 웨스트우드도 각각 17, 19, 20위에 올랐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은 34위, 양용은은 52위에 자리했다.

'2012년에 주목할만한 최고의 골프 선수' 대망의 1위는 오는 30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내년 시즌 첫 메이저 골프대회인 마스터스에 출전할 한국계 골퍼 5명도 확정됐다. 김경태와 배상문이 19일 발표된 세계랭킹 50위 안에 들어 내년 마스터스에 출전한다.

김경태는 세계랭킹 25위, 배상문은 30위에 올랐다. 재미교포 나상욱도 30위에 올라 출전을 얻었다. 최경주는 올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양용은은 2009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출전권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 '살파의 전쟁'

KIA 선동열 감독 "체지방 23% 유지하라" 엄명

'살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KIA 선수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KIA 선동열 감독은 마무리 훈련을 끝내면서 선수들에게 '체지방 23% 유지'라는 엄명을 내렸다.

시즌이 끝난 후 넉넉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던 선수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12월 휴식월이지만 KIA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자율훈련에 임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수술 때문에 마무리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거포 콤비' 나지완과 김주형은 12월 휴식도 반납하고 경기장과 산을 오가면서 몸매 만들기에 한창이다.

7kg 감량에 성공한 두 선수의 살빼기 전략은 조금 다르다.

나지완이 찹쌀밥과 무등산을 체중감량 장소로 삼아 운동량을 늘렸고, 김주형은

나지완·김주형 살빼기 '비지팜'

윤석민·김원섭 살찌우기 전략

식이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김주형은 "수술을 한 후 살이 많이 붙었는데 체지방이 25.5%가 나왔었다. 아침·저녁을 계란과 샐러드로 대체하면서 먹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치열한 '살파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여유 만만인 선수도 있다.

투수 윤석민과 외야수 김원섭은 선 감독으로부터 "살을 좀 찌우라"는 반대의 주문을 받았다.

평균 85kg의 체중을 유지하는 윤석민은 시즌이 끝난 후 2~3kg가량 몸무게가 줄었다. 만성 간염을 앓고 있는 김원섭은 KIA의 대표적인 마른체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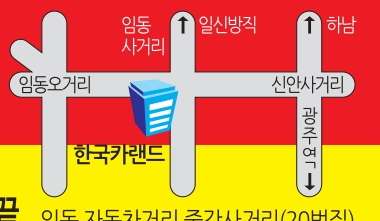
올 시즌 프로야구 주인공으로 각종 시상식을 누비느라 바빴던 윤석민은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한 뒤 여유롭게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인들과 술자리도 갖고 여행도 다니는 등 확실한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불리고 있다.

김원섭도 "잘 먹고 잘 쉬기" 전략으로 몸을 만들고 있다.

김원섭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으면서 휴식을 취했다. 그동안 개인훈련을 했었는데 21일부터는 경기장에 나가서 체계적으로 운동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밀양신평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너,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극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화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족시트, 인조가족시트, 수입차 가족시트제조
  - 비뒀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차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 천연가족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족시트

최저가

-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미엔트 3~5만원 무상점검
- 펄싱 펄크 무상점검
- 타이양 및 순환교체 펄싱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